

순수한 꿈을 되새기며

함 세 용 - 신부

우리는 귀여운 어린이들을 대할 때 아름답고 천진난만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참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한때 그러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들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며 심지어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인과 같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일종의 자연적 노화현상으로 윤리적으로는 타락의 한 과정이며 실존적으로는 인간 안에 내재된 필연적 이중성의 결과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이중성을 다음과 같이 겸허하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로마7,15~17)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선과 악, 진실과 허위, 신의와 배신이라는 이중성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이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선과 진실 그리고 신의라는 도덕적 기본가치를 드높이고,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된 악과 허위 그리고 배신이라는 죄적 요소들을 늘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회복을 위해 투신했던 동지들이며, 더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정보부, 보안사, 검찰, 감옥 등 여러 곳을 거치면서 갖은 모욕과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그 때와 비교할 때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 지하실에서, 감옥에서 지냈던 그 순수한 뜻과 의지가 과연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가라고 진지하게 묻는다면,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현실에서 때묻고 더러는 변질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난받던 우리가 정치 현장에서 여와 야로, 시민 운동에서는 타협과 순수라는 갈등의 모습으로, 지역문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호남의 차별과 편견



의 구도로, 경영 현실에서는 노사 어느 편이냐는 첨예한 대결로, 언론 현장에서는 참여와 개혁이라는 긴장 속에서, 통일운동에서는 회색과 순수라는 흑백논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은 이른바 양김의 분열로 치유 불가능한 결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순수했던 투신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분열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범죄인과 같이 된 어른의 변질된 모습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민주화운동에 전념하고 함께 투옥되고 함께 고난을 받고 또 함께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몸을 바쳤건만, 우리는 이제 여러 현장에서 서로 대치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양김 두 대통령의 철학 부재의 정치는 우리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를 바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안에 내재된 분열의 죄성을 함께 반성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사실 일제 강점하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우리의 선조들도 상해와 만주 등 곳곳에서 좌우로 대립했고, 좌우 각 진영 안에서도 또 다시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근원적 성찰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늘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양보하는 자세가 일치와 화합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또한 7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이른바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잔꾀를 부렸던 우리 종교인들의 행태도 함께 반성합니다. 그뿐 아니라 투신의 과정에서도 출신학교와 지역이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까지 그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지적을 듣게 될 때에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모두 순수했던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때 우리가 언제 대통령을 꿈꾸었습니까? 그 때 우리가 언제 장관을 꿈꾸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을 꿈꾸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평등의 공동체를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 때 그 마음을 되찾는 여기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건투를 다짐합니다. ■